

6·1 지방선거 평가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2022. 7.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진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 요약	1
I. 6.1지방선거 결과의 함의	7
1. 참패	
2. 자멸	
3. 희망	
II. 민주당의 패배 요인	20
1. 쇄신 부재	
2. 민심·당심 괴리	
3. 전략 실종	

〈 요약 〉

I. 6.1 지방선거 결과의 함의

1. 참패

1) ‘젼잘싸’ 에서 ‘완진싸’ (완전히 진 싸움)

○ 0.7% 박빙 승부가 7석, 11%차로 벌어진 대패

2) ‘도로 호남당’ 축소·고립

○ 호남 제외한 수도권, 대구경북, 부울경, 강원, 충청권 전 지역 참패

3) 호남 유권자의 환멸·균열

○ 광주의 낮은 투표율, 국힘 호남의 높은 득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호남유권자들의 환멸 대변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 지선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민주당에 실망’ 때문이라는 응답이 호남, 그중에서 광주에서 가장 많음

- 지선 결과에 대한 호남유권자의 가장 높은 불만족도는 호남 유권자들의 상실감과 고립감 반영

- 비투표자 중 투표하지 않은 이유가 ‘지지할 인물이 없어서’ 와 ‘민주당 심판’ 이라는 호남 유권자 응답이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옴. 그 중에 투표율이 낮았던 광주가 특히 높음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 호남 20대 유권자는 성별에 따라 크게 갈림

2. 자멸

1) 뻔셈정치, 젼잘싸, 지지층의 환멸이 초래한 패배

○ 선거 때마다 집토끼냐 산토끼냐는 논란만 있을 뿐 지역, 이념, 세대 등에서 선제적인 확장전략 부재

○ 민주당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기대가 환멸로 바뀐 민주당 지지층 방기

- 이탈한 민주층 회복하려는 쇄신노력 없이 검수완박, 위장탈당, 최강욱 성비 위처리, 한동훈 인사청문회 무능, 박지현 혁신안 수용거부 등 집토끼 중심의 전략만 고수
- 지선 사후 평가에서 민주당의 패배의 최대 요인으로 ‘민주당이 잘못해서’ 라는 응답이 65%, 국민의힘 승리 최대요인도 ‘민주당이 잘못해서’ 라는 응답 64.2% (리서치뷰, 6/13)
- 선거 패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민주 지지율 높은 20~50대의 투표 포기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인 4050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에 대한 실망’ 이 투표율이 낮았던 원인으로 인식
 - 2030은 선거 무관심이 투표율 저조의 원인으로 보는 반면, 4050은 투표율저조 자체를 민주당 심판으로 인식
 - 비투표자들 중 민주당 지지자들은 ‘찍을만한 인물이 없어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특히 많은 호남 유권자들 중에는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 투표를 포기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음

3. 희망

1) 민주당 승리의 길 보여준 선거

- 김동연 후보 당선은 민주당이 반성과 혁신, 새로운 인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 보여줌
-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선거 승리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 다시 확인

2) 민주당 쇄신 방향 담은 5대 쇄신안 제시

-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민주당의 5대 혁신안(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이 분란속에서도 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 박지현의 쇄신 메시지가 선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가 65.3%, 도움이 됐다가 23.8%
 -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쇄신 분위기를 계파싸움 양상으로 만든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원인 민주당 문제점으로 계파싸움이 내로남불 다음으로 높은 비율(17.7%)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온 내로남불 행태(25.4%), 쇄신외지 부족(14%), 586 기득권(13.3%), 소수 극성지지자들(11.5%) 등의 문제가 모두 박지현 위원장이 혁신외제로 제시했던 것

3) 2030 여성의 전폭적 지지

- 대선과 비교해 이번 지선의 20대 이하 민주당 지지율 상승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도 2030 여성의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같은 세대 남성에게 비해 크게 높게 조사됨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 박지현 위원장의 발언이 지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20대 여성들은 평균보다 훨씬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

II. 민주당 패배 요인

1. 쇄신 부재

1) 선거 패배 후에도 반성과 혁신 실종

- 보선패배, 대선패배 등 연속 패배한 정당다운 반성과 혁신의 치열함 실종
- 당 쇄신보다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급조된 검찰청법 개정 강행
- 슈퍼허니문 선거이고 대선 때의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선을 대선의 연장전으로 대응
- 공천과정, 지도부분란 등이 선거 후 당대표 선출과 연관된 당권싸움으로 표출되어 지선 승리의 절박함 보여주지 못함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도 지선에서 최우선은 반성과 혁신이었고, 민주당이 반성과 혁신을 하지 않은 것이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었음이 드러남
 - ‘민주당의 당 쇄신 노력 정도’ 를 묻는 질문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이념과 정당지지에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많음
 -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은 ‘문제인 정부의 잘못을 거듭 심판하기 위해서’ 임.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여전히 심판론 작동
 - 조국장관 관련해서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보는 여론 높고, 민주당 지지층도 다수가 충분치 않다고 여기고 있음

2) 이기는 혁신 추진하지 못한 지도부 리더십

- 반성과 혁신을 지선 승리전략으로 보고 과감한 쇄신안 제시했으나 선거 망치려는 내부총질로 폄훼
- 상식적 수준의 혁신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국민들은 선거승리의 절박함이 없는 것으로, 언론들은 선거승리보다 당권투쟁에 몰두한 결과로 일제히 비판
- 박지현의 당 혁신 요구 관련 내부분란은 분란 자체가 아니라 분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당 계과 갈등으로 비춰져 선거에 악영향 줌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 지도부 갈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74%,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18.7%
 - 그러나 선거 패인으로 비대위 내 분란은 7.5%로 이재명/송영길 공천 정당성 미흡(23.3%), 국정안정론우세(19.5%), 부동산정책 실패(15.9%), 당 혁신 미흡(11.7%), 좋은 공약 미흡(8.2%)에 비해 높지 않음
 -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계과갈등(17.6%)이 내로남불(25.4%)에 이어 두 번로 높은 비율인 점으로 볼 때 쇄신을 둘러싼 분란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계과갈등으로 비춰진 것으로 보임

3) 구태에서 못 벗어난 공천, 공약, 캠페인

- 서울시장 공천, 호남지역 공천 등 곳곳에서 원칙과 기준 불분명한 공천 진행해 혁신공천, 시스템공천 실종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도 좋은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투표 참가 포기 와 민주당 패배로 이어졌다는 사실 드러남
 - 투표 기권 이유로 개인사정(51.7%)외에 지지할 인물이 없어서(37.3%)가 두 번째 높아 뻥한 인물 공천에 대한 염증이 높은 비율 차지
 -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지역 유권자, 40대의 비투표 이유는 지지할 인물이 없어서가 1순위로 높음
 - 민주당 패배이유로 ‘이재명·송영길 등 공천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특히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 패배를 공천문제, 혁신미흡 등 당내 문제 때문으로 인식

2. 민심·당심 괴리

1) 민심과 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

- 민주당 승리의 공식이자 전통인 연합정치, 확장의 정치, 민심의 정치 실종
- 슈퍼허니문 기간에, 그것도 선거와중에 민심 외면, 강성지지층이 원하는 정치쟁점으로 정치전선에 당력 집중
- 위성정당 문제를 그토록 사과하고도 당심 앞장세워 위장탈당도 불사하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속도전 처리
- 국민들은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자신이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옳다며 민심 무시하는 내로남불 행태로 받아들임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도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내로남불 행태 지적
 - 민주당 지지자, 진보층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큰 문제로 보지 않는 반면, 중도층과 무당층, 국힘 지지층은 다수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큰 문제로 보고 있어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큼

2) 소수 강성 지지층에 포위

- 강성 지지자들의 득세로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실종. 건강한 다수가 민주당을 멀리하는 주요 요인이 됨
- 민주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적지 않은 국민이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소수 극성지지자 중심의 당 운영’ 을 지적

3. 전략 실종

1) 보이지 않은 선거전략과 전략단위

- 국민이나 당원, 당직자가 확인할 수 있는 민주당의 일관된 선거 전략 자체가 보이지 않음
 - 당의 선거전략 부재와 패권싸움(17.2%)이 ‘검수완박 추진(31.4%), 이재명·송영길 출마(18.3%)와 함께 민주당의 패배 주요 요인이라고 응답(한길리서치, 6/15)

2) 전략적이지 못한 선거전략

- 견제론, 균형론, 일꾼론, 쇄신론 등이 우왕좌왕 제기됨
-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안에 치러지는 역대 유례없는 슈퍼허니문 선거라는 점에서 견제론은 한계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패배한 주요 이유가 ‘국정안정론’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아 견제론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반증
 - 민주당의 패배 이유 응답에서 ‘이재명, 송영길 공천정당성 미흡’ (23.2%) 다음으로 ‘새로운 정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어서’ 가 두 번째 높은 응답(19.5%)
 - 견제론 vs. 안정론 프레임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세대로는 지지층이 많은 4050만 견제론 동의가 높았고 2030·중도층은 비동의 비율이 높음. 지역적으로는 호남만 견제론 동의 비율이 높았으나 비동의도 30%에 근접
- 일꾼론도 이번 지선 상황과 공천 등으로 인해 전혀 설득력 없는 전략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일을 잘 한다’ 혹은 ‘유능하다’는 메시지 전략이 통하기 어려웠던 상황 드러남
 - ‘더 유능했던 정당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힘 후보가 더 유능했다고 응답. 호남에서도 20%에 달함. 중도층에서도 국힘 후보가 더 유능하다는 응답이 훨씬 많음.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국힘 후보가 더 유능하다고 응답
- 대선 패배 정당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과 혁신의 쇄신론으로 정면 승부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 ‘민주당이 집중했어야 할 메시지’는 쇄신론이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음
 -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한 내로남불(25.4%), 계과갈등(17.7%), 쇄신 의지 부족(14%), 586기득권(13.3%) 등도 모두 민주당이 쇄신부족하다는 인식 보여줌

3) 확장전략의 부재

- 세대, 지역, 이념적 차원의 고립 상황에서도 이를 수수방관
 - 반면 국힘은 서진정책, 세대포위론 등 확장전략 가속화

4) 젠더 균열 대응 전략 부재

- 젠더 균열은 적어도 2030 청년 세대 내부에서는 투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유효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젠더 균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전략도 없이 선거 치름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도 국힘의 호남지지율 상승에 젠더균열 투표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I. 6·1 지방선거 결과의 함의

1. 참패

1) ‘젓갈싸’ 에서 ‘완진싸’ (완전하게 진 싸움)

- 0.7% 박빙 승부가 7석, 11%차로 벌어진 대패
- 임기 말 정권심판론과 분당 상황 속 치른 4회 지방선거 제외하면 최악의 역대급 패배
- 광역단체장 12대 5로 7석 차, 광역비례대표 전국득표율 52%대 41%로 11%차
- 기초단체장 145대 63, 광역의회의원 540대 322, 기초의회의원 1435대 1384
- 특히 서울 경우, 시장득표율 전체 선거구 패배. 광역비례 정당득표율도 전 선거구 패배

	5회(2010)		6회(2014)		7회(2018)	
	민주당	한나라당	새정치민주	새누리	더불어민주	자유한국
광역단체장	7	6	9	7	14	2
기초단체장	92	82	80	95	151	53
광역의원	360	288	349	329	652	137
기초의원	1025	1247	1025	1364	1639	1009

<지선 승패 분기점>

○ 민주당이 제시한 승패 기준

- 민주당은 선거 초반에는 광역단체장 7곳이면 선방, 8곳 이상이면 승리로 규정
- 선거막판 패배 전망 속에서 5-6곳이면 선방, 7곳 이상이면 승리로 하향 조정

○ 승패의 객관적 기준

- 선거 전 정당지지도, 윤대통령지지도, 대선 득표율 등을 고려한다면 슈퍼허니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2~3개 차의 승부 가능했던 상황. 특히 임기 중 정권심판이라는 최악의 구도에서 치른 5회, 6회 선거에서도 국힘 계열은 1~2차로 선방
 - 대선 당시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우세·박빙 지역 다수
 - 윤석열 당선인 국정지지율 부정 45%, 긍정 42%(한국갤럽, 4/22)
 -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긍정 44%, 부정 50%(한국갤럽, 4/22)
 - 정당 지지도, 민주당 40%, 국민의 힘 39%(한국갤럽, 4/22)

<20대 대선 득표율 이재명 우세·박빙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재명	45.4	38.5	24.0	49.6	83.6	47.3	39.1	50.8	41.2	45.0	47.2	82.6	83.7	24.6	39.0	52.2
윤석열	50.9	57.8	72.7	45.6	13.7	48.2	56.5	45.9	54.3	50.3	48.2	14.4	13.3	72.1	57.1	42.5

2) ‘도로 호남당’ 축소·고립

○ 호남 제외한 수도권, 대구경북, 부울경, 강원, 충청권 전 지역 참패

	수도권		강원		대구경북		부울경		충청	
	민주	국힘	민주	국힘	민주	국힘	민주	국힘	민주	국힘
광역단체장	1	0	0	1	0	2	0	3	0	4
기초단체장	19	46	4	14	0	28	1	34	8	23
광역의원	128	180	6	43	3	87	7	126	36	89
기초의원	506	501	66	101	53	317	175	306	166	206

○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제외한 13곳 전 지역 광역정당비례투표 패배. 이긴 제주도 1%의 근소한 차 우위

○ 광역단체장 0.1% 차로 이긴 경기도도 광역정당비례투표는 4.7%포인트 차로 패배

○ 2018년 지선에서 3명의 광역단체장, 25명의 기초단체장 배출했던 부울경 지역 완패

- 남해 군수만 유일하게 당선. 2010년 이후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김해시장 선거도 14.59%포인트 차 대패

<광역 비례 정당 득표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민주	40.9	33.3	19.2	43.8	68.6	42.2	34.5	45.7	45.4	38.4	39.1	39.9	71.8	73.7	19.4	31.4	45.2
국힘	53.9	63.0	76.8	51.1	14.1	52.6	57.9	48.5	50.1	56.8	55.8	55.5	16.4	11.8	75.4	62.3	44.2

3) 호남 유권자의 환멸·균열

○ 광주의 낮은 투표율, 국힘 호남의 높은 득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호남유권자들의 환멸이 원인

- 광주의 전국 최저 투표율 37.7%. 2018년 지선 전국 투표율(60.2%)에 비해 이번 지선 투표율(50.9%)은 10%로 하락. 광주투표율은 지난 2018년 투표율(59.2%)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하락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 지선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민주당에 실망’ 때문이라는 응답이 호남, 그중에서 광주에서 가장 많음¹⁾

- 지선 결과에 대한 호남유권자의 가장 높은 불만족도는 호남 유권자들의 상실감과 고립감 반영
- 비투표자 중 투표하지 않은 이유가 ‘지지할 인물이 없어서’ 와 ‘민주당 심판’ 이라는 호남 유권자 응답이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옴. 그 중에 투표율이 낮았던 광주가 특히 높음

■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투표율 저조 이유>

	민주당에 실망	지선 무관심	선거 피로감	국힘에 실망
전국 전체	42.3	27.5	15.2	6.6
호남 전체	46.2	22.8	16.8	8.6
광주	49.8	21.0	14.3	9.7
전북	46.1	24.1	18.9	7.1
전남	43.6	23.0	16.7	9.1

< 지선 결과 만족도 >

	서울	TK	PK	호남	진보	중도	보수
불만족	28.6	23.5	20.1	49.2	51.1	30.2	15.9
만족	43.0	51.0	41.7	23.5	21.5	35.9	59.3

<호남지역 비투표 이유>

	개인사정	지지할 인물 없어	정치무관심	민주당 심판
전국 전체	52.0	37.3	7.5	1.0
호남 전체	32.0	45.7	10.3	5.3
광주	23.9	36.1	20.3	10.5
전북	60.9	32.7	0.0	0.0
전남	55.5	44.5	0.0	0.0

○ 호남 광역단체장 3곳 모두 최초로 국민의힘계열 후보 15% 이상 득표

- 국민의힘 전남 이정현 후보 18.81%, 전북 조배숙 후보 17.88%, 광주 주기환 후보 15.90%
-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은 광주·호남지역에서 역대 최대 득표율. 광주지역에서는 87년 이후 보수당으로서 역대 최초 두 자리 수 득표(12.72%)

1) 민주연구원 2022.6.17~18일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호남 여론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전국 1,500명 표본 중 호남을 500명으로 부스터 표본으로 추출 나머지 지역을 1,000명으로 인구 비례에 맞게 추출한 후, 최종 1,500명 표본을 전체 인구 비례에 맞게 1,000명으로 가중 처리하여 산출함

<광주 호남 역대 대선 결과>

	2022	2012	2002	1997
민주당	이재명 84.6	문재인 89.0	노무현 93.2	김대중 94.4
국민의힘	윤석열 12.9	박근혜 10.5	이회창 4.9	이회창 3.3

○ **지선 최초로 전남, 전북, 광주 지역 42개 전 선거구에서 국힘 광역비례정당 득표율 10% 이상 획득**

- 광주광역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4.11%의 득표율을 기록해 27년 만에 보수정당 첫 시의원 배출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 호남 유권자 중 상당수가 국힘의 서진 정책 진정성 높게 평가**

- 김종인 5·18사과, 윤 대통령 5·18 기념식 참가, 이준석 취임 후 전남 20회 방문 등 꾸준한 서진정책에 호남 유권자 균열 조짐
- 특히 호남 20대 남성은 국힘의 서진정책에 매우 호의적임

■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윤 대통령 및 국힘의 5·18 행사 참석 평가

		진정성 있는 행보	보여주기에 불과
전국 전체		45.1	47.5
호남 전체		27.0	66.8
지역	광주	30.0	66.4
	전북	24.6	67.1
	전남	26.9	66.8
연령/성	20대 남성	42.1	42.1
	20대 여성	18.4	67.0
	30대 남성	26.0	66.8
	30대 여성	16.2	83.8
	40대 남성	34.4	65.6
	40대 여성	21.3	71.2
	50대 남성	31.2	68.8
	50대 여성	25.5	72.4
	60대 이상 남성	28.3	64.0
	60대 이상 여성	23.7	69.5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 호남 20대 유권자는 성별에 따라 크게 갈림**

- 호남 20대 유권자에게 지역요소보다 성별요소가 더 큰 영향
- 호남 20대 남성은 민주당에 대한 일체감이 거의 없고, 국힘 지지에서 다른 지역 20대 남과 차이가 없으며, 호남 20대 여성과 확연한 차이 보임
- 20대 남성의 민주당 불신 정도가 여성보다 훨씬 높음

■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호남 20대 남녀 유권자의 균열 상황

<지선 광역단체장 투표 정당 후보>

	민주당	국힘당
호남 전체	63.9	15.9
20대 남성	38.2	31.2
20대 여성	66.5	5.4

< 더 유능했던 정당 후보>

	민주당	국힘당
호남 전체	59.3	17.6
20대 남성	44.7	30.9
20대 여성	51.4	14.6

<지선에서 정부 견제론 프레임 동의 여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았다
호남 전체	68.1	27.4
20대 남성	44.2	46.8
20대 여성	72.0	28.0

<민주당이 집중했어야 할 메시지>

	쇄신론	지역일꾼론
호남 전체	36.5	33.7
20대 남성	51.1	27.5
20대 여성	36.1	39.9

<박지현 쇄신 발언 지선 도움 정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도움이 되었다
호남 전체	67.0	24.1
20대 남성	52.9	25.2
20대 여성	45.3	45.5

< 민주당이 강조했어야 할 메시지>

	쇄신론	지역일꾼론
호남 전체	36.5	33.7
20대 남성	51.1	27.5
20대 여성	36.1	39.9

< 조국 전 장관 관련 민주당의 사과 충분정도>

	충분하지 못했다	충분했다
호남 전체	50.6	39.5
20대 남성	58.8	25.2
20대 여성	36.1	55.3

○ 호남지역 유권자의 동요와 균열은 호남 원적의 수도권 유권자에게도 큰 영향 미칠 가능성 높음

- 서울, 인천, 경기 유권자 원적 중 광주·호남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음

원적 거주지	사례수 (명)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이북/ 기타	모름/ 응답
2012 전국	21,563	6.0	8.7	5.5	18.0	22.0	17.0	16.2	1.2	3.4	2.1
2017 전국	21,715	6.5	8.3	5.0	16.7	22.9	16.8	16.2	1.4	3.3	2.8
2022 전국	6,003	7.2	8.8	5.3	16.7	21.8	15.8	16.7	1.5	3.5	2.8
서울	1,134	15.6	9.3	4.8	15.9	22.2	11.7	12.3	0.9	4.1	3.3
인천/ 경기	1,892	9.7	18.4	6.0	18.3	19.9	10.5	8.5	0.7	5.1	2.9

(출처: 한국갤럽)

- 대선 전 수도권 유권자의 원적별 지지율 조사에서도 광주호남 출신 유권자들 이재명 높은 지지

<20대 대선 수도권 유권자의 원적에 따른 지지율>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전/세 종/충청	광주 호남	대구 경북	부산/울 산/경남	제주	이북 기타
이재명	48	40	40	47	71	37	46	42	45
윤석열	48	53	54	48	26	60	49	51	51

(출처: 한국갤럽)

2. 지멸

1) 뺄셈정치가 초래한 패배

○ 선거 때마다 집토키나 산토키냐는 논란만 있을 뿐 지역, 이념, 세대 등에서 선제적인 확장전략 부재

- 반면 국힘은 탄핵의 정치적 책임 인정, 막말 인사 퇴출, 태극기부대 등 극단세력 단절, 호남공략, 호남 구민주당 인사들 대거 영입, 30대 당대표, 이대남 전략 등 이탈한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까지 공략하는 슈퍼 확장전략으로 보수복원뿐만 아니라 뉴 보수 형성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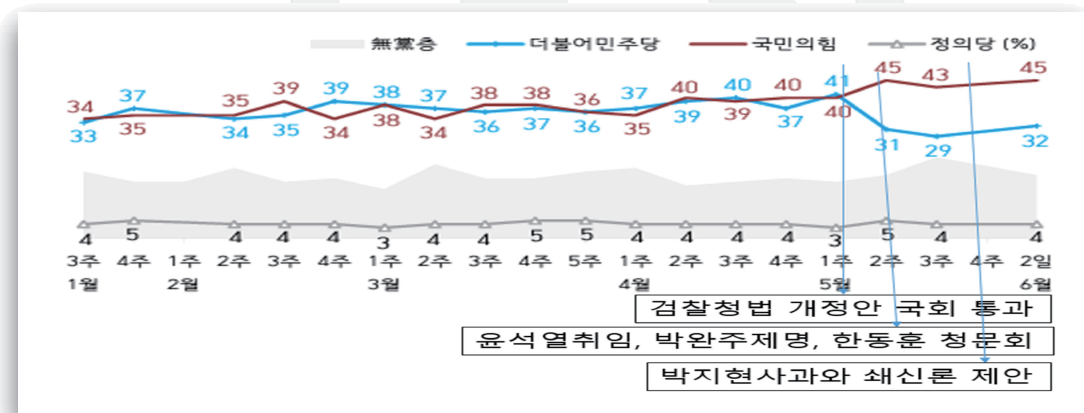
○ 이탈한 민주층 회복하려는 쇄신노력 없이 검수완박, 위장탈당, 최강욱 성비위처리, 한동훈 인사청문회 무능, 박지현 혁신안 수용거부 등 집토키 중심의 전략만 고수

- 당내 어떤 이견도 내부총질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상황 반복
- 대선 전 정당지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4명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등을 지지했던 사람들(한국일보, 2022/2)

○ 국민의 공감 없이 지지자 지향의 개혁과제 무리하게 추진

- 선거 막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검수완박 추진
-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가운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의 긍정평가 이유도 검수완박이었고,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도 검수완박 추진인 상황에서 검수완박 강행

<지선 전 정당지지율 추이>



(출처: 한국갤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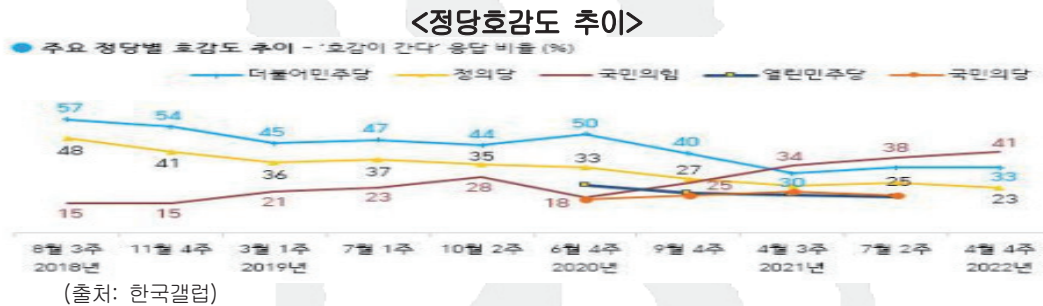
2) 사이민주만 외친 정신승리

○ 민주당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기대가 환멸로 바뀐 민주당 지지층 방기

- 사이민주를 수줍어하는 민주로 규정하며 사이민주를 내세워 아무 근거도 없이 여론조사결과까지 불신
- 사이민주가 존재했다면 그들은 수줍거나 화나서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TV안보는 내성적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민주당 행태에 민주당 지지자라는 사실 자체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워하는 민주
- 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도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이보수가 대거 투표장에 나가 보수정당 찍을 거라는 정신승리로 폭망.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 ‘이 꼴 보려고 박근혜를 뽑았나’ 라며 자책과 분노로 자신이 보수임을 수치스러워한 보수층 방기

○ 선거 앞 호감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국힘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뒤짐

- 검수완박 강행, 청문회 무능, 위장탈당, 성폭력 사건 등 민주당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건의 연속



3) ‘젓잘싸’ 라는 오만

○ 0.73% 대선 패배를 젓잘싸라고 영똥하게 해석, 강한 지지층 정서만 우선해 검수완박에 올인

- 이는 이탈한 민주층 설득해 복귀시키고 강한 지지층의 정서도 고려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행위 포기한 것
- 지선 투표자 중 민주당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1.5%, 국힘 지지한다는 응답은 51.1%로 국힘 지지자 투표참여율이 더 높음(방송3사 출구조사)

○ 지선에 대선 이재명 투표자들은 대거 투표 불참한 반면, 윤석열 지지자들은 적극 투표

- 지선에서 윤석열 투표자 중 51.6% 투표. 반면 이재명에 투표한 사람은 41.0%만 지선 투표 참여(방송3사 출구조사)

○ 대선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와 지선 민주당이 얻은 표를 비교하면 대선 후 석 달 새 687만 표 감소

- 지선에서 광역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이 얻은 표는 927만 4784표. 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은 1614만 표의 57.4%에 그침
- 반면 국힘이 광역정당비례 득표수는 1159만 7442표. 대선에서 윤석열이 얻은 1639만 표의 70.7% 획득

○ 지선 사후 평가에서 민주당의 패배의 최대 요인으로 ‘민주당이 잘못해서’ 라는 응답이 65%, 국민의힘 승리 최대요인도 ‘민주당이 잘못해서’ 라는 응답 64.2%(리서치뷰, 6/13)

- 같은 조사에서 진보층의 65.5%, 대선 이재명 지지층의 62.0% 역시 ‘민주당이 잘못해서’ 를 각각 1순위로 꼽음

4) 지지층의 환멸과 심판

○ 선거 패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민주 지지율 높은 20대~50대의 투표 포기

- 출구조사 결과 전국단위 연령별 정당 지지율에서 20대, 40대, 50대의 민주당 후보 지지율 높음. 30대와 60대 이상은 국힘 지지가 높게 나옴
- 지난 대선에서도 40대의 60.5%는 이재명 후보를, 35.4%는 윤석열 후보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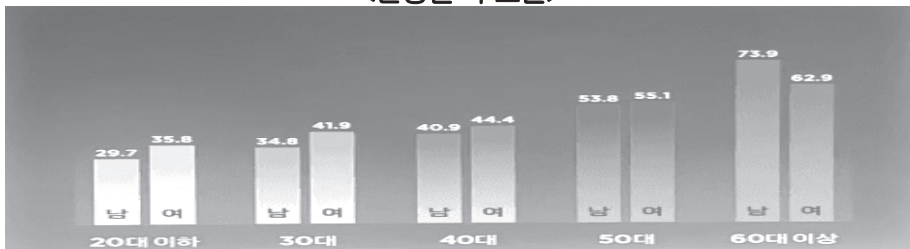
<연령별 정당 득표율>



(출처: 방송3사 출구조사)

- 그러나 이번 지선에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의 투표율은 전체 평균투표율에도 못 미친 40% 초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인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70% 상회
- 사전투표 비중도 대선과 비교하면 20~40대는 줄고, 60대 이상은 증가

<연령별 투표율>



(출처: 방송3사 출구조사)

○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지방선거 관심도 및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1·2차 여론조사 결과’ 에서도 40대 투표의향이 6070세대보다 낮음

- 1차 조사(5/20)에서 40대 적극 투표참여 의향(78.9%)은 60대(85.3%)와 70세 이상(80.6%)보다 낮음
- 2차 조사(5.27)에서 40대의 적극 투표참여 의향(71.8%)은 하락한 반면, 60대(85.3%)와 70세 이상(88.7%)의 적극 투표참여 의향은 변화 없거나 상승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인 4050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에 대한 실망’ 이 투표율이 낮았던 원인으로 인식

- 2030은 선거 무관심이 투표율 저조의 원인으로 보는 반면 4050은 투표율저조 자체를 민주당 심판으로 인식
- 비투표자들 중 민주당 지지자들은 ‘찍을 만한 인물이 없어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특히 많은 호남 유권자들 중에는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 투표를 포기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음

■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투표율 저조 이유>

	민주당에 실망	지선 무관심	선거 피로감	국힘에 실망
전체	42.3	27.5	15.2	6.6
20대	19.2	51.2	19.2	3.4
30대	39.9	30.6	17.4	7.1
40대	50.6	17.2	16.3	7.2
50대	48.0	20.8	17.5	7.0

<비투표 이유>

		개인사정	지지할 인물 없어	정치무관심	민주당 심판
전체		52.0	37.3	7.5	1.0
지역	서울	59.6	34.7	5.7	0
	광주전남전북	32.5	45.1	10.5	5.3
연령	20대	67.6	23.3	6.9	0.3
	30대	50.0	35.8	11.3	0
	40대	23.8	69.7	0.9	1.2
	50대	45.7	39.8	9.8	4.7
	60대 이상	44.5	46.2	7.8	0
정당	민주당	33.8	56.4	4.1	3.0
	국힘당	62.4	25.3	7.7	0
	무당층	56.1	32.8	10.7	0.4

3. 희망

1) 민주당 승리의 길 보여준 선거

○ 민주당이 반성과 혁신, 새로운 인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 보여줌

-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선거를 치른 김은혜를 이김으로써 민주당에게 쇄신을 바라는 국민 정서 확인
- “저 김동연이 낮은 곳으로 들어가 민주당의 변화를 만들어낼 씨앗이 되겠다. 민주당을 심판하시더라도 씨앗은 남겨 달라” (김동연, 5/24 기자회견)

○ 민주당연구원 조사에서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 색채가 약해서 당선되었다’는 주장에 동의 42.6%, 비동의 46.3%로 오차범위에서 대등

-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당선에 영향을 줬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이 10명 4명에 달함
-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당선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절실하다는 반증

○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선거 승리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 다시 확인

- 서울 성동구청장, 남해군수, 청양군수 등 풀뿌리 민주주의에 천착해 성과를 낸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은 불리한 선거구도, 보수의 텃밭에서도 승리

2) 민주당 쇄신 방향 담은 5대 혁신안 제시

○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민주당의 5대 혁신안(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이 분란 속에서도 넓은 국민공감대 확보

- 슈퍼허니문 선거, 당 지지율 급락 등으로 견제론 무력화 상황에서 반성과 혁신을 내세운 쇄신론은 이탈 민주당층과 중도층에게 투표 명분을 줄 수 있는 최상의 선거전략

○ 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혁신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점에서 큰 성과

○ 박 위원장의 쇄신요구를 신속히 수용하지 않고 계파 싸움으로 인식되게 한 점이 선거에 악영향

- 문제는 분열 자체가 아니라 분열 자체를 해소하고 통합하는 그림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못한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 박지현의 쇄신 메시지가 선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가 65.3%, 도움이 됐다가 23.8%

-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쇄신 분위기를 계파싸움 양상으로 만든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원인. 민주당 문제점으로 계파싸움이 내로남불 다음으로 높은 비율(17.7%)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온 내로남불 행태(25.4%), 쇄신의지 부족(14%), 586 기득권(13.3%), 소수 극성지지자들(11.5%) 등의 문제가 모두 박지현 위원장이 혁신의제로 제시했던 것

2) 2030 여성의 전폭적 지지

○ 20대 총선부터 지난 대선까지 2030세대의 민주당 이탈 지속

- 그러나 대선과 비교해 이번 지선의 20대 이하 민주당 지지율 상승

<대선 지선 20대 득표율>

	민주당	국힘
20대 대선	47.%(이재명)	45.5%(윤석열)
8회 지선	51.1%	46.3%

- 특히 2030 여성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대선에 비해 국힘 크게 앞섬

<대선·지선 2030 성별 지지율>

		민주당		국힘	
		대선(이재명)	지선	대선(윤석열)	지선
20대 이하	여성	58%	66.8%	33.8%	30.0%
	남성	36.3%	32.9%	58.7%	65.1%
30대	여성	49.7%	56.0%	43.8%	42.2%
	남성	42.6%	39.6%	52.8%	58.2%

(출처: 방송 3사 출구조사)

-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20대 여성의 압도적 지지가 김동연 후보 당선에 결정적 기여

출구조사 결과		김동연(%)	김은혜(%)	민주당 Gap(%)	기타후보(%)
전체		49.1	48.9	0.2	2.0
성×연령별	남_20대	40.9	54.8	-13.9	4.3
	남_30대	48.7	47.9	0.8	3.3
	남_40대	63.0	34.1	28.9	2.9
	남_50대	56.5	41.5	15.0	2.0
	남_60대	30.9	67.5	-36.6	1.6
	남_70대	23.1	76.3	-53.2	0.6
	남_이상	76.8	20.7	56.1	2.5
	여_20대	59.9	38.5	21.4	1.6
	여_30대	67.1	30.9	36.2	2.0
	여_40대	57.1	41.9	15.2	1.1
여_50대	33.5	65.9	-32.4	0.6	
여_60대	24.8	73.9	-49.1	1.3	
여_70대					
여_이상					

(출처: JTBC-글로벌리서치 출구조사)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도 2030여성의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같은 세대 남성에 비해 높게 조사됨

■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지선 광역단체장 투표 정당 후보

	민주당	국힘	정의당
18~29세 남성	18.6	44.3	0.9
18~29세 여성	47.6	13.9	1.2
30대 남성	24.4	46.9	3.7
30대 여성	39.8	32.9	2.1

○ 대선에 이어 이번 지선에서도 2030여성 결집에 박지현 위원장 큰 역할

-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적 정책 기조에 반발한 측면도 있지만 당의 대표가 된 박지현 위원장이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격한 대응,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2030여성들이 민주당에 표를 줄 명분이 생김

<20대 남녀의 인식 변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식 변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식 변화 전망			
이재명 후보 인식 변화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박지현씨의 이재명 후보 지지		차별금지법 제정 에 찬성했다면, 지지 변화 여부	더 지지 했을 것	변화 없다	덜 지지 했을 것
	좋아짐	나빠짐				
■ 전체 ■	22.0	29.7	■ 전체 ■	31.8	57.1	11.1
20대 남성	14.9	37.2	20대 남성	30.7	46.8	22.5
20대 여성	49.9	11.6	20대 여성	52.0	39.4	8.6

(출처: 시사IN-한국리서치)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 박지현 위원장의 발언이 지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20대 여성들은 평균보다 훨씬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

■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 박지현 위원장 쇄신 메시지 지선 도움 정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도움이 됐다
전체	65.3	23.8
18~29세 남성	58.1	22.9
18~29세 여성	40.9	38.8
30대 남성	73.7	19.3
30대 여성	63.7	28.3

	도움이 되지 못했다	도움이 되었다
호남 전체	67.0	24.1
호남 20대 남성	52.9	25.2
호남 20대 여성	45.3	45.5

II. 민주당 패배 요인

1. 쇠신 부재

1) 선거 패배 후에도 반성과 혁신 실종

- 보선패배, 대선패배 등 연속 패배한 정당다운 반성과 혁신의 치열함 실종
 - 선거에서 저야 정당은 바뀐다는 상식 외면한 채 오만과 나태함으로 일관
- 당 쇄신보다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급조된 검찰청법 개정 강행
 - 검찰개혁법 통과 이후 민주당 지지율 급락
 - 지선 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부정평가의 요인으로 검수완박 추진과 당내쇄신 부재가 높은 응답
- 태도와 정책적 혁신 부재로 지선이 심판론 구도의 대선 연장전이 됨
 -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선거 전면에 나서 대선불복 프레임 공격받는 상황 초래
 -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의 부재, 문재인정부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 부재에 유권자 실망
- 공천과정, 지도부 분란 등이 선거 후 당대표 선출과 연관된 당권싸움으로 표출되어 지선 승리의 절박함 보여주지 못함

<민주당의 지선 패배 가장 큰 요인>

분류		검수완박	당내패권싸움	대선패배 책임자 선거출마	당내 국회의원 성폭행논란	지도부 내부총돌
전 체		31.4	17.2	18.3	7.1	12.3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13.5	23.4	9	11.6	23.3
	국민의힘	48.8	9.9	25.3	5.2	3.7
	무당층	23.4	20.9	17.7	4	16.3
정치 성향	진보	15.2	24.6	9.3	13.3	22.5
	중도	28	18.4	18.9	5.7	14.1
	보수	45.1	13	23.1	5.4	6.4

(출처: 한길리서치. 6/15)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도 지선에서 최우선은 반성과 혁신이었고, 민주당이 반성과 혁신을 하지 않은 것이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었음이 드러남

- ‘민주당의 당 쇄신 노력 정도’ 를 묻는 질문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이념과 정당지지 여부에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많음
-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거듭 심판하기 위해서’ 임.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여전히 심판론 작동
- 조국장관 관련해서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보는 여론 높고, 민주당 지지층도 다수가 충분치 않다고 여기고 있음

■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민주당 당 쇄신 노력 정도>

	전체	진보	중도	보수	민주 지지	국힘 지지	무당층
노력하지 않음	67.7	64.2	73.2	71.6	64.2	73.7	57.3
노력함	12.0	13.7	10.0	10.7	14.8	9.5	13.7

<국민의 힘을 선택한 이유>

	문재인 정부 거듭 심판	후보 경쟁력이 나아서	후보 소속 정당을 지지	민주당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전체	53.2	18.8	16.8	8.7
진보	58.0	21.9	12.8	5.0
중도	54.0	22.1	13.3	9.1
보수	56.1	14.0	19.6	8.5
민주 지지	38.4	39.0	11.5	8.6
국힘 지지	55.9	15.6	17.4	8.7
무당층	46.1	20.2	21.3	12.4

<조국 전 장관 관련 민주당 사과/반성 충분 정도>

	전체	진보	중도	보수	민주 지지	국힘 지지	무당층
충분하지 않음	65.6	50.0	66.3	82.6	42.9	88.8	63.2
충분함	24.6	38.8	26.9	8.3	45.1	6.1	19.4

2) 이기는 혁신 추진하지 못한 지도부 리더십

-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반성과 혁신을 위한 과감한 쇄신안 제시했으나 선거 망치려는 내 부총질로 폄훼
- 상식적 수준의 혁신제안도 일사분란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국민들은 선거승리의 절박함이 없는 것으로, 언론들은 선거승리보다 당권투쟁에 몰두한 결과로 일제히 비판

- 박지현 위원장 5대 쇄신안: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

○ 박 위원장의 혁신안은 대선평가보고서로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5대 과제’ 와 큰 차이가 없을 만큼 공론화된 민주당 혁신 과제

- 민주연구원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5대 과제’ : ▲더 믿을 수 있는 민주당 ▲더 주도적인 정당 ▲더 넓은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젊은 민주당

○ 박지현의 당 혁신 요구 관련 내부분란은 분란 자체가 아니라 분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당 계파 갈등으로 비춰져 선거에 악영향 줌

- 국힘 경우 당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당무를 거부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수습과정을 통해 오히려 윤석열 지지율 급상승 초래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 지도부 갈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74%,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18.7%

- 그러나 선거 패인으로 비대위 내 분란은 7.5%로 이재명·송영길 공천 정당성 미흡(23.3%), 국정안정론 우세(19.5%), 부동산정책 실패(15.9%), 당 혁신 미흡(11.7%), 좋은 공약 미흡(8.2%)에 비해 높지 않음
-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계파갈등(17.6%)이 내로남불(25.4%)에 이어 두 번로 높은 비율인 점으로 볼 때 쇄신을 둘러싼 분란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계파갈등으로 비춰진 것으로 보임

3) 대선 심판론 지속시킨 공천, 공약, 캠페인

○ 서울시장 공천, 호남지역 공천 등 곳곳에서 원칙과 기준 불분명한 공천 진행해 혁신공천, 시스템공천 실종

- 호남지역에서는 심각한 공천파행으로 탈당 무소속 자치단체장 7곳, 기초의원 74명 당선

○ 특히 전체 선거에 영향이 큰 서울시장 후보 공천의 난맥상으로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당원에게 철저하게 외면

- 송영길 후보 득표수 1,733,183 vs. 구청장 후보 득표 2,038,101. 304,918명의 유권자가 교차투표. 제3후보를 투표하지 않고 최대 경쟁자인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 혹은 이탈
-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국힘의 광역비례 득표 격차(-10%p)와 기초 단체장 득표 격차(-6.8%p) 대비 광역단체장 득표의 격차(-19.9%)가 훨씬 크게 나타남

○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반성 없이 대선과 지선 지속

- 보선과 대선에서 패인으로 지적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 전환방향 등 제시하지 못함
-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 새로운 정책방향을 보여 줄 수 있는 어떤 공약과 이슈도 제기하지 못함
- 민영화 반대 등 여전히 진영논리에 입각한 이슈, 김포공항 이전 등 준비되지 않은 공약 제시하며 우왕좌왕
- 시대상황에 맞는 새롭거나 신선한 선거캠페인 방식 없는 낡은 선거전으로 일관

○ 민주당연구원 조사에서도 대선패배 책임자들의 공천 등 공천실패, 부동산 정책실패 심판 등이 민주당 패배 요인이었다는 응답이 많음

- 투표 기권 이유로 개인사정(51.7%)외에 지지할 인물이 없어서(37.3%)가 두 번째 높아 뻘한 인물 공천에 대한 염증이 높은 비율 차지
-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지역 유권자, 40대의 비투표 이유는 지지할 인물이 없어서가 1순위로 높음
- 민주당 패배이유로 ‘이재명, 송영길 등 공천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특히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 패배를 공천문제, 혁신미흡 등 당내 문제 때문으로 인식

■ 민주당연구원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패배 이유

항목	전체 비율	민주당 지지자	광주호남
이재명·송영길 등 공천 정당성 미흡	23.2%	12.6%	18.73%
새로운 정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어서	19.5%	12.4%	8.1%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심판하기 위해	15.8%	16.8%	11.3%
대선 이후 당 혁신이 미흡해서	11.6%	18.4%	17.1%
뛰어난 공약이나 정책이 보이지 않아서	8.2%	10.7%	8.8%
비대위 내 (윤호중 박지현) 분란 때문에	7.5%	14.0%	16.4%

■ 민주당연구원 여론조사: 비투표 이유

		개인사정	지지할 인물이 없어	정치무관심	문 정부/민주당 심판
전체		52.0	37.3	7.5	1.0
지역	서울	59.6	34.7	5.7	0
	광주전남전북	32.5	45.1	10.5	5.3
	연령	20대	67.6	23.3	6.9
연령	30대	50.0	35.8	11.3	0
	40대	23.8	69.7	0.9	1.2
	50대	45.7	39.8	9.8	4.7
	60대	44.5	46.2	7.8	0
정당	민주당	33.8	56.4	4.1	3.0
	국힘당	62.4	25.3	7.7	0
	무당층	56.1	32.8	10.7	0.4

2. 민심 · 당심 괴리

1) 민심과 멀어진 갈라파고스 정당

- 민주당 승리의 공식이자 전통인 연합정치, 확장의 정치, 민심의 정치 실증
 - JP와도 손잡았던 DJ, 정몽준과도 연합한 노무현의 정신과 전통 상실
 -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불러온 고립의 정치가 국힘의 지난 4연패 비극 초래
 - 2019년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심은 황교안 55.3%, 오세훈 22.9%, 민심은 황교안 37.7%, 오세훈 50.2%. 당심으로 황교안 당대표 선출
- 당 운영과 의사결정에 당심과 민심을 조화시키려는 노력 없이 고립 자초
- 슈퍼허니문 기간에, 그것도 선거와중에 민심 외면, 강성지지층이 원하는 정치쟁점으로 정치전선에 당력 집중
- 위성정당 문제를 그토록 사과하고도 당심 앞장 세워 위장탈당도 불사하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속도전 처리
 -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해 잘못된 것(52%)이라는 응답이 잘된 것(33%)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옴(전국지표조사, 5/5)
 -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68%가 찬성, 반대가 17%, 무당층은 41%가 반대, 22%가 찬성(한국갤럽, 5/4)
- 국민들은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자신이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옳다며 민심 무시하는 내로남불 행태로 규정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도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내로남불 행태 지적
 - 민주당 지지자, 진보층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큰 문제로 보지 않는 반면, 중도층과 무당층, 국힘 지지층은 다수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큰 문제로 보고 있어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큼

■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

	내로남불	계파갈등	쇄신의지부족	586 기득권	소수 극성지지자 중심 당 운영	리더십 부재
전체	25.4	17.6	14	13.4	11.5	11
진보	13	21.8	18	16.8	9.7	15.5
중도	25.1	15	15.8	11.7	14.8	11.3

보수	40.2	13.8	9.5	13.0	11.2	6.9
민주 지지	9.4	24.9	19.3	13.8	9.4	18.3
국힘 지지	42.4	12.6	8.7	12.4	14.0	5.0
무당층	22.1	13.5	12.5	19.9	6.5	6.5

2) 소수 강성 지지층에 포위

- 강성 지지자들의 득세로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실종. 건강한 다수가 민주당을 멀리하는 주요 요인이 됨
 - 국힘도 과거에 30% 핵심 지지층에 끌려 ‘탄핵의 강’ 앞에서 주저하는 동안 ‘발목 잡기’, ‘이념과잉’, ‘막말정치’로 선거 연전연패
- 문자폭탄과 폭력적 언어의 적대적 행위가 당내 만연해도 지도부는 여전히 ‘양념’처럼 방기해 옴
 - 국힘이 보궐선거에서부터 이번 지선까지 승리한 데는 국정농단 사과, 탄핵 인정으로 박근혜 지지자, 태극기부대와 같은 극단세력과 완전히 결별한 것이 결정적 요인
 - 국힘이 경기도지사 선거가 위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강용석과 끝내 단일화하지 않은 것은 극단세력과 완전히 단절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서 장기적으로 플러스 효과
- 민주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적지 않은 국민이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소수 극성지지자 중심의 당 운영’을 지적

3. 전략 실종

1) 보이지 않은 선거전략과 전략단위

- 국민이나 당원, 당직자가 확인할 수 있는 민주당의 일관된 선거 전략 자체가 보이지 않음
- 당내 선거 전략을 누가 어떻게 주도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지속
- 전략과 연계된 공천, 공약, 홍보, 공보, 메시지의 유기적 구조 붕괴
- 결국 전략적 기획 없이 모든 단위가 각개 약진해 자신의 업무만 수행하며 선거 치름
- 전반적인 선거 전략부재와 나태한 선거전을 두고 국민들은 지선승리보다는 지선이후 당권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
 - 당의 선거전략 부재와 패권싸움(17.2%)이 ‘검수완박 추진(31.4%), 이재명·송영길 출마(18.3%)와 함께 민주당의 패배 주요 요인이라고 응답(한길리서치, 6/15)

2) 전략적이지 못한 선거전략

- 견제론, 균형론, 일꾼론, 쇄신론 등이 우왕좌왕 제기됨
-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안에 치러지는 역대 유례없는 슈퍼허니문 선거라는 점에서 견제론은 한계
 - 이번 지선에서 견제론이 한계를 지나는 이유는 첫째, 대선에서 이재명 선택의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은 ‘윤석열이 싫어서’ 였지만, 허니문 선거라는 점에서 반 윤석열은 작동하기 힘든 조건. 둘째, 의회다수당이 견제를 위해 지방권력을 달라는 것은 의회권력이 없어 일하기 힘들다는 국힘의 안정론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도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패배한 주요 이유가 ‘국정안정론’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아 견제론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반증
 - 민주당의 패배 이유 응답에서 ‘이재명, 송영길 공천정당성 미흡’ (23.2%) 다음으로 ‘새로운 정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어서’ 가 두 번째 높은 응답(19.5%)
 - 견제론 vs. 안정론 프레임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세대로는 지지층이 많은 4050만 견제론 동의가 높았고 2030, 중도층은 비동의 비율이 높음. 지역적으로는 호남만 견제론 동의 비율이 높았으나 비동의도 30%에 근접

■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현 정부 견제론 프레임 공감도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았다
전체		45.2	49.7
지역	서울	44.0	49.4
	인천경기	46.2	48.6
	강원	39.7	57.4
	대전세종충청	47.9	46.3
	광주 전북 전남	68.2	27.3
	대구 경북	22.4	71.4
	부산 울산 경남	42.0	55.4
	제주	68.4	31.6
연령	20대	41.1	47.5
	30대	44.1	52.6
	40대	55.7	40.5
	50대	53.8	43.9
	60대 이상	36.1	59.1
이념	진보	66.3	30.6
	중도	42.7	52.7
	보수	28.3	67.8

○ 일꾼론도 이번 지선 상황과 공천 등으로 인해 전혀 설득력 없는 전략

- 일꾼론이 유효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첫째, 지역에서 아무런 실적도 없이 연고지를 옮겨 출마한 서울시장, 인천계양 등을 두고 전체 선거를 유능한 일꾼론 구도로 설정한 것은 무리. 둘째, 지방권력을 민주당이 맡아 왔는데 그 실적과 성과가 뚜렷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능한 일꾼론은 설득력 없고 오히려 국힘의 새로운 인물론에 무기력
- 아무도 우리가 더 유능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능한 일꾼론은 민심과 괴리로 전체적 선거를 이끌 수 없었던 구도.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한 경북도지사 후보였던 임미애 후보의 경우는 토착일꾼으로 자신을 내세워 선전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일을 잘 한다’ 혹은 ‘유능하다’ 는 유능한 일꾼의 메시지 전략이 통하기 어려웠던 상황 드러남

- ‘더 유능했던 정당 후보가 누구냐’ 는 질문에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힘 후보가 더 유능했다고 응답. 호남에서도 20%에 달함. 중도층에서도 국힘 후보가 더 유능하다는 응답이 훨씬 많음.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국힘 후보가 더 유능하다고 응답

■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더 유능했던 정당 후보

		민주	국힘
전체		32.1	49.4
지역	서울	31.3	48.5
	인천경기	36.6	45
	강원	35.2	49.7
	대전세종충청	34.1	52.1
	광주 전북 전남	59.3	17.5
	대구 경북	11.9	71.9
	부산 울산 경남	15.7	64.1
	제주	47.4	42.1
연령	20대	27.5	38.7
	30대	28.0	45.1
	40대	45.7	36.3
	50대	36.6	49.2
	60대 이상	25.4	65.7
이념	진보	54.9	24.1
	중도	30.7	51.2
	보수	11.5	75.7

- 대선 패배 정당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에 반성과 혁신의 쇄신론으로 정면 승부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
 - 반성과 성찰, 쇄신 내세워 민주당과 상대적 거리감을 유지한 김동연 후보의 당선은 의미심장
-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반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속도전 처리.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성비위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로 지지율 급락
- 이를 돌파하기 위해 박지현 위원장이 들고 나온 상식적인 쇄신안을 포용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지도부의 리더십에 민심이반 가중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 ‘민주당이 집중했어야 할 메시지’는 쇄신론이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음
 -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한 내로남불(25.4%), 계파갈등(17.7%), 쇄신의지 부족(14%), 586기득권(13.3%) 등도 모두 민주당이 쇄신부족하다는 인식 보여줌

■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민주당이 집중했어야 하는 메시지

	대선 패배 후 당 쇄신 위한 쇄신론	지역일꾼론	견제론과 균형론	인물론
전체	39.6	29.1	11.6	9.9
진보	36.5	29.6	18.3	11.9

중도	46.6	25.1	10.6	10.0
보수	40.9	29.6	7.9	7.5

3) 확장전략의 부재

- 세대, 지역, 이념적 차원의 고립 상황에서도 이를 수수방관
 - 반면 국힘은 서진정책, 세대포위론 등 확장전략 가속화
- 오히려 집토끼 결집 중심의 게으르고 나태한 선거캠페인으로 상대의 안정론, 국정발목 잡기 프레임을 공격거리만 제공
- 중도층 유인전략 없이 지지층 결집, 조직 투표에만 의존하는 축소지향의 공학적 선거 방식 되풀이
- 국힘과 차별화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에 기반을 둔 정책 제시 없어 지지층마저 투표 동기 상실. 호남 최악의 투표율이 단적인 증거

4) 젠더 균열 대응 전략 부재

- 대선에서 젠더 균열은 적어도 2030 청년 세대 내부에서는 투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유효한 요인으로 작동
- 2030 남녀의 이념성향 차이, 정당호감도의 차이는 극명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젠더 균열 축에서 청년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적극적인 포지션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30 지지 확대
 - 국민의힘 외연 확장에 2030지지율 증가가 큰 영향. 2020년 4월 총선 미래통합당은 20대에서 32%, 30대에서 29.7%의 예측 득표율을 기록 →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20대에서 45.5%, 30대에서 48.1%의 지지 → 이번 지선에서 20대 46.3%, 30대 49.6%로 지지율 증가
- 이미 문제인 정부 때부터 문제시 되었던 이대남 지지율 하락에 어떤 대책이나 전략도 없이 선거 치름
- 그런 상황에서 20대의 박지현 위원장을 장식용으로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2030 청년들의 반감 오히려 가중

○ 민주연구원 조사에서도 국힘의 호남지지율 상승에 젠더균열 투표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호남지역(전남, 전북, 광주)도 지역요소 뿐만 아니라 세대와 젠더요소가 투표의 주요 변수가 됨

■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호남지역(전남, 전북, 광주) 광역단체장 투표 정당 후보

	민주당 후보	국힘 후보	정의당 후보	기타 후보	투표안함
전체	63.9	15.9	1.7	6.6	11.9
18~29세 남성	38.2	31.2	0	8.2	22.4
18~29세 여성	66.5	5.4	0	3.3	24.8
30대 남성	57.7	18.1	4.2	3.0	17.0
30대 여성	79.4	4.8	5.6	0	10.3

6·1 지방선거 평가